

“경협자금 미리 확보”... 대기업, 회사채 공격적 발행

남북 경협 자금 확보 E-로드 열렸다 자금조달 나선 기업들

LG그룹은 올 1분기에 2조4000억원 어치의 회사채를 조달했다. 주요 계열사인 LG전자와 LG화학의 실적 반등에 힘입어 자금을 조달한 것이다. LG화학은 회사채 수요 예측제 도입 이후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인 1조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지난 2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5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수요 예측을 실시한 결과 2조1600억원의 자금이 물린 덕분이다. 이는 2012년 국내에 수요 예측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SK그룹도 회사채 시장의 큰 손이다. SK그룹 계열사들이 같은 기간 발행한 회사채 규모는 총 1조9930억원에 달했다. 지주사인 SK(주) 3100억원, SK하이닉스 3000억원, SK실트론 2800억원 등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후폭풍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현대차 그룹은 올해 1분기 전체 물량의 8.73%에 해당하는 1조600억원어치를 조달했다.

재계 순위 상위 대기업 계열사들이 블랙홀처럼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대부분 AA급 이상의 높은 신용등급에 그룹 후광까지 등에 업은 주요 대기업은 기관 투자자의 풍부한 수요를 바탕으로 자금 조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남북경제협력 등에 대한 기대로

올 5개월간 회사채 발행액 31.3조 경협 범위 예상 이상 전망에 기대감 10대그룹 회사채발행확대 가능성↑

대기업들은 앞으로도 회사채 시장에서 스펀지처럼 자금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경협 기대, 대기업 자금 확보 나서나
1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회사채 시장 주요 10대 그룹(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신세계 CJ)이 회사채 발행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올해 들어 5개월간 회사채 발행액(공사모)은 약 31조3000억원이다. 이는 2017년 발행액 48조6000억원의 64.4%에 달한다.

크레딧 시장 관계자는 “주요 그룹 향후 현금흐름이나 투자 계획을 고려할 때 발행 니즈(Needs)가 크지 않겠지만 남북 경제협력 기대감, 지배구조 개편 등을 앞두고 연초 선발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장 설비투자 수요는 적다. 투자 동향을 보여주는 4월 설비투자 지수는 전월보다 3.3% 감소했다. 3월에 7.8% 줄어든 데 이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예상밖 호재가 나왔다.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다.

건설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북한의 각

〈10대 그룹 회사채 발행니즈 점검〉

구분	2017 순발행 (a)	2018 만기 (b)	연간 투자계획 (c)	2018 발행수요 (d, b+c-a)	순발행가능 (EBITDA) (d-e)	순발행가능 (OCF) (d-f)
삼성	(1,240)	1,880	41,000	42,880	3,081	19,137
현대차	217	1,645	8,900	10,328	X	X
SK	455	4,109	19,500	23,154	2,318	3,889
LG	1,190	2,515	12,900	14,225	X	941
롯데	1,925	3,022	3,100	4,197	X	X
포스코	(135)	960	2,700	3,660	X	244
GS	(355)	1,350	1,000	2,350	X	X
한화	265	1,605	1,400	2,740	X	237
신세계	(235)	1,155	1,100	2,255	537	1,064
CJ	1,180	750	8,100	7,670	6,017	6,042

종 인프라 구축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금융위원회의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 과제’에서 북한의 인프라 개발 비용을 철도 773억달러, 도로 374억달러로 산업육성 비용으로는 농수산업에 27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특히 북한이 최근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했다고 밝히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포함해서 경협 범위가 예상을 넘어설 것이라 기대 섞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지금 당장 구체적인 경협에 기대를 갖기는 이르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만큼 경협이나 교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배구조개편 등 자금 수요 요인도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더욱 철저한 혐의 입증과 분석을 통해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고 중소기업의 거래 기반을 훼손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논어에 나오는 ‘위산일케(爲山一畝·산을 쌓는 것은 한삼태기의 흙에 달려 있다)’를 인용하며 “작은 노력들이 쌓이고 쌓이면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관들의 수급도 좋다. 한·미 금리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기관의 해외투자 헷지(위험회피) 비용 부담은 확대되고 있다.

◆올해 회사채 발행니즈 32조

신한금융투자 이들 10대 그룹의 회사채 발행 니즈를 추정한 결과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 기준으로

11조9530억원 가량의 발행 수요가 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OCF) 기준으로 31조554억원이다.

그룹별로는 삼성그룹이 OCF기준으로 19조1370억원의 회사채를 순발행 할 여건이 된다. EBITDA기준으로 3조810억원의 수요가 있다. 다만 2분기 기준 7조원 가량의 현금자산과 최근 발행 실적을 고려할 때 실제 순증 발행은 크지 않을 것으로 IB업계는 보고 있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 수요가 있다.

OCF 기준 3조8890억원, EBITDA 기준 2조3180억원의 순증 발행이 예상된다. 다만 SK그룹은 약 6조 1000억 원 가량의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규모 순증 여부는 불투명하다.

10대 그룹 중 가장 수요가 큰 곳은 CJ 그룹이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서 2020년까지 물류, 바이오, 문화산업에 약 36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에 2018년 8조 1000억원 가량의 투자를 예상할 때 약 6조원대(EBITDA 기준 6조170억원, OCF기준 6조420억원)의 회사채 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신세계는 EBITDA 기준 5370억원, OCF 기준 1조640억원의 발행 수요가 있다.

LG는 9410억원(이하 OCF 기준), 포스코 2440억원, 한화 2370억원의 순발행 니즈가 있다.

/김민호 기자 kmh@metroseoul.co.kr

‘미디어공룡’ 넷플릭스 만나는 방통위 규제 형평성·제2 폐북사태 대안 마련할까

국내 미디어 협력방안 논의 위해 21일 넷플릭스 간부 방통위 방문 방통위, 국내 업계-넷플릭스 간 원활한 소통 등 중재자 역할 관심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뉴스1

이달 중 넷플릭스 본사 고위급 임원이 방한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 미디어시장 규제가 어떻게 바뀔 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넷플릭스가 본격적인 한국 미디어시장 공략을 앞두고 방통위를 통해 관련 규제체계를 검토하고 협력방안을 찾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데이비드 하이먼 고문 변호사가 오는 21일 방통위를 찾아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

하이먼 변호사는 넷플릭스에서 법무 및 공공정책 관련 현안을 총괄하며 리드 헤이스팅스 최고경영자(CEO)의 비서실장도 겸직하고 있다. 최근 넷플릭스의 국내 진출이 다가온 상황이라서 콘텐츠 유통 및 제작투자자와 관련한 현황과 비전을 설명하고 한국 방송·미디어 생태계와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넷플릭스 측은 당초 방통위 상임위원 면담을 요청했지만 우선 실무 면담

만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의 직접 경쟁상대인 관련 국내 업체들이 보내는 경계의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넷플릭스는 콘텐츠와 플랫폼을 둘다 가지고 있으며 자본력과 영업력이 거대한 미디어사업자로 꼽힌다. ‘미디어 공룡’으로 불리는 넷플릭스가 쉽게 국내 규제를 허물고 들어오게 되면 글로벌 경쟁력이 크지 않은 국내 IPTV 업계가 큰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넷플릭스는 최근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업자들과 IPTV·모바일콘텐츠 공급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에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딜라이브와 CJ헬로비전 등 케이블TV사업자의 온라인스트리밍(OTT) 셋톱박스에서 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가입자 수는 아직 20만명 정도로 파악되지만 주요 통신사와 손잡고 요금결합상품 형태로 서비스하면 대폭적인

가입자 증가를 노릴 수 있다고 전망된다.

하지만 이렇게 국내에서 빠르게 사업을 확대하는 넷플릭스는 국내법에 의한 방송·미디어 관련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해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있으며 아직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OTT 분야 사업자라는 판단 때문이다. 앞으로도 영향력에 비해 규제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IPTV 서비스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엄청난 트래픽 유발량도 문제다. 국내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국내 통신망의 트래픽 부담이 폭증하기 때문에 망 사용료 분담 문제도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미 페이스북, 구글 등 해외사업자와 국내사업자의 규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따라서 넷플릭스측은 콘텐츠 유통 및 제작투자 이슈를 강조하며 선제적으로 한국 방송·미디어 생태계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방통위는 넷플릭스측에 국내 통신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난 8일 미디어업계와 통신업계 실무진 및 전문가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허 부위원장은 넷플릭스 상륙에 따른 ▲지상파 ▲IPTV ▲통신사 ▲콘텐츠공급자 등 각 업종별 현황과 영향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박람회 ‘화이팅’ 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3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개막식에서 권평오 KOTRA 사장(오른쪽 네번째) 등 주요 인사들이 참가 구직자들의 취업 성공을 기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방통위 “방송사업자 갑질 막는다” 지상파 재송신 분쟁 직권조정 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간 분쟁으로 방송중단 등 중대한 시청권 침해가 예상되는 분쟁을 직권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지난 5일 방송분쟁조정제의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송의 유지 재개 명령이 내려진 방송분쟁에 한해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청자를 불모로 방송사업자들이 분쟁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 하반기 진행될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 사이의 가입자당 재송신료 협상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시청권 침해 우려가 있던 분쟁은 실제로 있었다. 지난 2016년 KT스카이라이프와 지상파 방송사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고 지상파 3사가 방송신호 공급 중단을

통보했다. 이 때 방통위는 방송중단을 막기 위해 방송유지명령을 부과했지만 KT스카이라이프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전까지 조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사업자 자율권 침해 논란 같은 우려에도 국민 시청권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방송유지 재개 명령 도입 이후에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업계는 입장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였다. 케이블TV, IPTV, KT스카이라이프 등 유료방송 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는 직권 조정예 대해 과잉규제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내달 16일까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사업자간 의견이 크기에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다. /안병도 기자